

2013 6.02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

제 1 독서 : 창세기 14, 18-20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다.>

제 2 독서 : 코린토 1 서 11,23-26 <여러분은 먹고 마실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복 음 : 루카 9,11 L-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어떤 바보가 향아리 가게엘 들렀습니다. 아시다시피 향아리가게에서는 향아리를 꺼꾸로 뒤집어서 진열해 놓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그걸 모르고, 바보이기때문에 “왜 향아리가 주둥이가 없지?”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향아리의 밑바닥을 살펴보고는, 왜 향아리들이 한결같이 밑이 빠져있을까 하며 머리를 가우뚱 거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화에 불과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 바보와 같이 사물을 잘못보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다아시는 장님과 코끼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사물의 한단면만을 보고 전체를 다 아는양 착각을 하곤 우리 자신들을 빗대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꼭 시키는 것만을 하는 것을 보고는 언짢아 하실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종업원들이 보고도 그일을 처리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업원들은 주인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좌 신부생활을 2년반 하였습니다. 그때는 성당 전체의 일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임신부가 되고 나서는 성당전체의 일이 이것 저것 다 보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당에도 핸디맨이 있지만 전구가 나갔다던지, 수도가 고장 났다던지, 화장실에 배수가 잘안된다던지등의 모든일들을 제가 지적하여야만 그때서야 수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는 핸디맨의 눈에는 그 전체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이해합니다. 공동체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중에도 회장이 있고 총무, 또한 담당부서장들이 있지만 각위치에서 공동체를 보는 눈들이 다 다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각자가 보고있는 것만이 다인양 착각을 한다면 바보가 진열된 향아리를 보고 밑이 빠졌다고 하는것하고 다를바가 없습니다. 자식들 역시 부모가 어떻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베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부모가 고생하며 돈을 버는것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주제를 알고 살아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좋은 차를 샀다고 내처지가 그렇지 못함에도 덩달아 그값비싼 차를 사게 되면 페이먼트도 늘어나고 보험료만 올라 괜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를 말고, 그냥 자기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것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때에 우리는 행복해 질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입니다. 저는 매일 미사를 봉헌할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미사를 건성으로 드리면 안된다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즉, 이 부족한 사제의 손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이 신비스로움에 저역시 온마음과 정성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체 앞에서 주님의 평화를 느끼십시오.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의 눈이, 나의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알기위해서는 코끼리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코끼리 전체를 다 다듬고 나서야 코끼리에 대해서 정확히이야기 할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정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은총을 받고 안받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역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그 은총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장대비를 맞기위해서는 우리는 집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틀어 박혀서 “ 왜 나에게에는 안줘 “ 하고 울부짖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성체를 모시기 위하여 일 이백달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성체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이 자유의지의 선택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죄에 얽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속가 중에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 달라, 삶과 죽음 달라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체를 가져가 악의로 사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으며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모신 성체로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봉헌 할수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한번 다짐하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 이자리에 계신 분들중에 100 년전에 계셨던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00 년후에 이자리에 계실분들도 한분도 안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현재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말기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4,18-20

그 무렵 18 살렘 임금 멜키체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19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20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1,23-26

형제 여러분, 23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24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25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26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1 ㄴ-17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11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13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16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